

### [경기] DMZ 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파주서 24일까지

제12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파주출판도시에서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33개국에서 122편의 작품을 출품한 이번 영화제는 국제 경쟁작과 아시아 경쟁작, 한국 경쟁작을 비롯해 세계의 다큐멘터리 화제작을 볼 수 있는 글로벌비전 섹션과 DMZ 오픈시네마 섹션 등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영화제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반 관객의 입장이 제한돼 심사위원과 작품 관계자만 참석하고 일반 관객은 유튜브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 등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국민일보

### 분단 상징을 평화의 장으로- 'DMZ의 미래' 열띤 토론

#### '2020 DMZ 포럼' 오늘까지 열려 분정민·스티븐스 등 석학 참여

분단의 상징인 DMZ(이탈방위축)을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과 논쟁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는 9월 17일 양남읍공삼천 29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K연립스 (사)공작어협이 공동주최한 '2020 DMZ 포럼'을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평화NGO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여해 DMZ는 평화의 원천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DMZ를 양평간 거점발전과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훈 등인 다루는 '기회 세팅',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팅', 양평하구의 평화의 원천 활용 논의를 '협력세팅', 남북 교류 기술 협력 등을 다룬 '초월세팅' 등을 비롯한 4개 온라인 세팅으로 진행했다.

18일 진행된 평화운동 협력세팅에서는 최근 4대동작야생야생협약의 이사진으로 취임한 이태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상 특별강연을 통해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정이다. 문정인 총알이국민보 특별취재팀과 방송권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는 공동으로 '북핵위협 하에서도 협력세팅을 주제로 특별세팅'을 주제한다.



포럼 현장 디엠지(De)의 DMZ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인평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사)공작어협이 공동주최한 이태환 전 (사)공작어협이 공동주최한 이태환 전

이태환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얻을 수 없는 기회이자 승리의 순간만 얻고 싶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평화는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평 통일부장관은 "남북이 다시 평화의 열매의 과일을 볼 때 DMZ는 원래와 대항의 문물기가 시작되는 원천지이자 국제협력지대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DMZ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력이 있는 이태환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인평 통일부장관 기자 contact@mb.co.kr

# ‘한반도 평화 기원’ 33개국 122편의 다큐를 만나다

## DMZ국제다큐영화제 개막

파주출판도시서 8일간 축제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진행  
메가박스·유튜브 등서 상영



개막작 다큐 <학교가는 길>의 한 장면.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17일 오후 7시 경기 파주시 메가박스 파주출판도시에서 막을 올렸다.

영화제는 오는 24일까지 8일간 열린다. 메가박스 백악에서 33개국 122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초청 인원만 입장해 매우 성황과 아니어서 임원주의 사회로 진행됐다. '아난지 밴드'와 '엘비규어스 맨스필드'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영상 축하공연과 개막작 <학교 가는 길>이 상영됐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 지사는 "영화제를 통해서 대

결과 갈등의 상징인 DMZ를 평화, 소통,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개막작은 김정인 감독의 <학교 가는 길>이다.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담은 <학교 가는 길>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묵직한 주제를 던지는 작품이다. 영화제는

국제경쟁 및 아시아경쟁, 한국경쟁을 비롯해 세계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볼 수 있는 글로벌리전 섹션과 DMZ오픈시네마세션 등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애쓰시위원과 작품 관계자 등만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시대 다큐멘터리의 현재를 탐구하는 무관중 포럼과 DMZ편찬영화관 '다락(Doc&樂)', 다큐멘터리 교육프로그램 '독 스쿨(Doc School)'을 유튜브 'DMZ영화제 채널'과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dmzdocs.com)를 통해 공개한다.

김태영 기자 ktaey@kyunghyang.com

## 아시아투데이

# 이재명 “남북 공동의료·방역센터 만들자” 北에 제안

DMZ포럼서 5개사업 적극 호응 촉구  
조건없이 수해복구 대북지원 뜻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남북 공동방역 및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포럼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 관리 협력 △점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협력사업을 북측에 제안하며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 피해를 막고 모두



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포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진강 수계관리와 관련해서는 수해 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 관리 기구’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함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재개와 서해 경제 공동지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슬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지원 기금 지원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개포양묘장과 농촌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할 것도 제안했다.

끝으로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가 났을 때 북측이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것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이날 개막한 DMZ 포럼은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리아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미국 하버드대 조셉나이 교수 등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 NGO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초청세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의정부=이대희 기자

# 北에 손내민 이재명... '임진강 수계관리 남북공동기구' 제안

DMZ 포럼' 개최연설중 공식제기  
피해-보전 양면면터 설명도 언급  
"북측 물어 필요-봉선 결심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진강 수계관리 공동 관리를 위한 '남북 수계관리 기구' 제안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17일 개최한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이 지사는 "남북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경협을 통해 사자민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것이 남북 교류에 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임진강 수계 관리 현안, 남북공동 생태 및 외교 현안, 환경 자원을 남북 공동 조사 연구, 남북 공

통 산림 복원 및 농촌유지사업, 대북 수역 복구 지원에 적극적 지원한다. 앞서 이 지사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물안정 수위를 확보 해야 개발의 안전을 위한데 흡수 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경우 수역 복구에 위급 사태 수급량이 대개하는 조성이 됐다면 관공, 원수원과 4만 4천 농을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은 물론 올해도 폭지고, 임진강 물은 예년만큼 회복하는데 이 도움, 그에 따라 물리내륙이 되고 관련하면 침전도 할 수 있고 부패한 용수 확보도 할 수 있어 남북 모두 이해가 되는 이유에서다. 홍경만행부 등으로 인한 현안-파조지역수 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등도 언급했

다. 기조연설에서 이 지사는 "남측은 흡수 능력을 하고 북한은 물 부족 사태에 접근 관련해 흡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위 안정과 물순환을 위한 공동 수계관리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개성-개천 일대에 '남북 공동 조류-부근 생태생태' 실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르면 내년 10월경부터, 조류나방 등 전염병이 공해를 넘어 남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학을 하고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동 참여 과학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고, 동시에 남북이 양자 협력관 대교 현안과 지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팀 제정하고 지

해상제염해역구 연구사업에 대 협력할 조성을 이행하는 한편 도기 관련 협력에 대한 유언 (북한에게 양해 수안을 지원) 관련도 개성안보단-농촌시정개발 조성에 대해서도 현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조연설에서 조인했다"라며 수계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두는 현재 이 지사는 대화를 준비가 돼 있다. 3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한의 양자가 꼭 필요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DMZ 포럼은 DMZ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17~18일 2일간 안소도 진행된다.

ksj@kyeongin.com

## 전세계서 주목 '평화수호 나침반'

### DMZ 포럼 '온라인 개막'

리마보위등 해외 유명인사 연설  
홈페이지서 '콘텐츠' 시청 가능

분단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2020 DMZ 포럼'이 17일 막을 올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사)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임동원 렛츠 디엠즈(Let's DMZ)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전 통일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개회사·환영사·축사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평화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분단의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라며 "평화는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경기도의 대북협력 사업 제안을 발표한 이 지사, 2011년 노

벨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국제관계학 석학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조셉나 이 교수의 기조연설이 영상으로 진행됐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류킨텍스,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DMZ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NGO 등 90여명이 참여해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17~18일 양일간 ▲DMZ의 역사적 가치와 보전 등을 다루는 '기획세션' ▲평화운동NGO가 참여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을 논의할 '특별세션' ▲남북 과학기술 협력 등을 다룰 '초청세션' 등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DMZ 포럼은 공식 홈페이지(www.dnzforum.or.kr)에 접속하면 세션 시청 등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kyeongin.com

파주 'DMZ 평화관광' 22일부터 20명씩 하루 10회 운영

11개월만에 재개... 방역조치 철저

“코로나 블루(Blue·우울)를 DMZ 힐링 여행으로 푸세요.”

파주시는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11개월째 중단된 'DMZ 평화관광'을 오는 22일부터 20명씩 하루 10회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단체관광은 사전예약제로만 실시한다.

시는 관광 재개에 앞서 ASF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및 예방조치를 완료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대표→이동→관람 등 관광객의 모든 동선에 발열 검사 등 2-3중의 대인 방역을

거쳐도록 했다. 시는 특히 최근 육군 제1사단과 시간대별 20명씩 관광시물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관람시설의 밀집도·중점도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시는 또 ASF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방역과 관광객 밀집도 완화시책 등을 병행하고 관광객 출입기록, 방역 및 마스크 착용 여부를 상시 확인할 방침이다.

최종환 시장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에 나설 것”이라며 “DMZ 평화관광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李 지사 “남북 공동 방역센터 설립하자”

삼림복원·농촌종합개발 등  
北에 5가지 협력사업 제안

DMZ 포럼 기조연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2020 DMZ 포럼'에서 남북 공동방역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에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적극적이고 합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서 변명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점검지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5대 협력사업



17일 오후 개12회 DMZ국제다문화포럼특별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개막식 영문개막식

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첫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 모

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개종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둘째로 ‘남북 수계 관리 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남측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 부족 사태 예방과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셋째로 “이제는 한강강구 남북공동수로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 등에 대한 유엔 대북재제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제재 격정이 사라진 만큼, 개종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자”고 말했다.

다섯째로 이 지사는 “최근 언이론 태풍으로 북측의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한다.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구조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 있는 만큼 가능한 형편에서 대북 수해복구 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통 큰 결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 이재명 “개풍·개성 남북방역센터 설립하자” 北에 공동사업 제안

후, DMZ 포럼 기조연설서 5개 제시  
인원감 수혜관리기구 등 관련 협력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평안도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평안도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했다.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이 지사는 "평화 협력의 상징성을 세계에  
알릴 'DMZ Life & DMZ'에 '다문화'가  
필수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DMZ 포럼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20 DMZ 포럼'이  
제1차 남북관계 개편을 위한 남북  
대화를 위한 5개 제안을 제시하며 남북  
대화에 역점을 개풍·개성·포항도 강조  
국회엔 남북정상회담 비록 촉구

# 이재명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세우자”

## ‘2020 DMZ 포럼’ 기조연설

이재명 경기지사 "평화와 번영의 한반  
도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  
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에 공동사업  
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7일 열린 '2020 DMZ 포럼' 기  
조연설을 통해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  
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 일  
상 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담당 해야 할 일"이라며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올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는 DMZ를  
풀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  
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  
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회  
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반정의 길로 가는 것  
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협력 사업을  
북 측에 제안했다.

이 지사가 북 측에 제안한 협력사업은 ▲남

경기도는 남북관계 영향 크게 받아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이익 강조  
북한에 남북 공동사업 5가지 제안  
李 지사 "북한의 통 큰 결심 기대"

-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 ▲임진강 수계관리
- ▲점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 ▲대북 수해복구 지원

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점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공동 산림  
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다.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  
다"며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  
해 피해를 막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

했다.  
이러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하면 남측  
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물부족과 전염  
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동  
수계 조사도 재개해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 양  
묘장 조성, 스마트온실 등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제재  
각종이 사라진 만큼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  
마을 조성에 대한 협정도 재개하자"고 제안했  
다.

또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북 측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  
원사업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북  
협력 준비가 되어 있다"며 "5가지 제안을 실현하  
려면 북 측의 참여가 꼭 필요한 만큼 통 큰 결  
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  
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  
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  
부했다.

김재민 기자



파주 DMZ평화관광이 22일부터 재개된다. 파주관광 명물인 임진각 곤돌라. /파주시 제공

### 22일부터 ‘파주 DMZ평화관광’ 재개

하루 10회 각각 20명으로 제한  
단체는 사전예약제로만 운영

파주시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해 11개월째 중단된 파주 DMZ 평화관광이 오는 22일부터 포스트 코로나 힐링여행으로 새롭게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DMZ 평화관광 재개는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에 10회, 1회 투어인원은 20명으로 제한하며 단체관광은 사전예약제로만 실시한다.

파주시는 관광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동점검 및 예방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매표-이동-관광 등 관광객의 모든 동선에 발열체크

를 비롯한 2-3종의 대인방역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육군 제사선과 시간대별 20명씩 관광사플래이션을 실시하는 등 관람시설의 밀집도-중점도 등을 점검하고 최종 조율을 마쳤다.

파주시는 관광재개 중에도 ASF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와 관광객 밀집도 완화시책은 병행하고 파주 화방일자리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관람 중 출입기록, 방역 및 마스크 착용여부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방문객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DMZ 평화관광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 기호일보

# 이재명 지사, 北에 “공동 방역·수해 복구 지원” 메시지

DMZ 포럼서 도 직원 남북협력사업 제안… 북측에 직접 촉구

“경기도가 협력할 여력이 있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DMZ 평화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파주 지역을 대표하여 사업을 협의 진행해주시고 공식 제안했다. 도 직원도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과 고성군간 남북공동연구사업(수해 복구 이후 협력) 남북 관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도 기대하는 바이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열린 “2020 DMZ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남북 공동 방역 및 수해 복구 지원 등 3가지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다.

3가지 협력사업은 ▶ 남북 공동 방역 및 예방 협력 ▶ 북한에 수해 복구 지원 ▶ DMZ 경제 사업 남북 공동 조사 연구 ▶ 남북 공동 산림 자원 관리 남북 공동 개발 ▶ 대북 수해 복구 지원이다.

남북 공동 방역 및 예방 협력 사업은 남북 협력이 직접 진행되는 것이 북측에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 2년간의 지원금을 제공해 코로나19 등 각종 전염병 예방에 남북이 함께 방역과 예방 협력 및 방역 지원에 따라야 한다는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일련된 수해관리 협력 제안은 홍수 발생 시 북한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침범해 연안 등 인천권-강릉에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관리해 수해 방지와 협력적인 물 관리를 위한 ‘남북 수해관리 기술 교류’ 제안했다. 협력이 사업에 대해 남북이 공동 조사-연구와도 제안했다. 홍수관리 남북 공동 수호본서 및 서북경계공동연구 조성, 연안공회 지원 등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촉구

했다.

도도가 자생발전 촉진을 위한 조경 활동과 스포츠 중심에 대한 협력 확대에 대해 경제 수업을 받고 결과 관리에서도, 저성장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협의 재개를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에서 도를 위한 건강관리 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조급한 수해 복구 지원을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남북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할 관저까지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한다. 그중이 남북 교류에 있어 어렵고 있다”며 “경기도는 현재 이어서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3가지 제안을 환영하려면 북측의 관심이 꼭 필요한 만큼 남북 교류를 확대해달라”고 북측에 재차 당부 촉구했다.

경남경제권을 형성하고 “여성은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변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불균형한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도화에서 19명의 선수는 아무는 것이 우리도 당당 해줄 것”이라며 “2020 DMZ 포럼”에 대한 기대를 지면 남북정상선언 비전 등 연안을 조속히 추진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도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DMZ는 평화를 위한 터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DMZ 포럼은 리아베리야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아 베리야, 피터 해버드트, 조셉 니콜리코프 등 국내외 과학, 예술가, 평화 NGO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김태환도 참석했다. 김태환, 조종현도 동행했다. /파주 = 최연식 기자

# 이재명 지사, 북에 공동방역 등 5가지 제안

2020 DMZ 포럼 참석-"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앞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북한에 '남북 공동 방역과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 과격 제안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데 경기도가 온 힘을 쏟겠다"며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과 경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복원과 농촌융합개발을 북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한다"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향을 되찾는 최선의 노력이다. 평화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 다리 회담과 평양 공동선언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만들었으나 지키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좋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여기에 남북관계 완화를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며 "그런 만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남북 공동 방역 및 의

료 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경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복원과 농촌융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북에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위해 개공·개성 일대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를 설립과 남북 수계관리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남포이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에도 힘을 모으자고 했다.

그는 "관강하구 남북공동 수로 조사를 재개하고 서해경제 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협의대로 이행해야 할 때다"라며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관양정을 잇는 평화중원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또 "북원도 비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안다. 1984년 우리가 홍수 피해를 보았을 때 북한은 조건 없이 구호물자를 지원했다"며 "경기도 역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5가지 제안을 실현하려면 북편의 참여가 필요하다. 봉군 관심을 기대한다"며 "국회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공동선언 비준 등 당면 현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평화 협력에 관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기자@incheonilbo.com